



동식물 1/3, 50년 안에 멸종 위기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멸종될 것으로 추정되는 종들. 왼쪽부터 호주의 보이드 도마뱀, 스코틀랜드 솔갓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화인 프로테아

글_ 류통은 기자 teryu@kofst.or.kr

지구 온난화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앞으로 50년 안에 지구상의 육지 식물과 동물 중 3분의 1 이상이 멸종 혹은 멸종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했다.

영국 리즈대학의 크리스 토마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6개 지역 동·식물 자생종 1,103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구 온난화로 평원이 사막으로 바뀌고 숲이 파괴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이 생물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사라지거나 멸종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구온난화 현상을 예측한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의 기후변화 모델을 적용, 2100년에 가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약 1.4~5.8℃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 기온상승에 따라 연구대상 종(種) 가운데 15~37%가 2050년까지 사라지거나 서서히 멸종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온난화의 3가지 가상 시나리오 중 중간단계 기후변화 예측에 따르면, 이 때까지 4분의 1이 완전 멸종하거나

절멸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종은 호주 도마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화인 프로테아, 브라질의 나무인 비롤라 세비페라, 스코틀랜드의 솔갓새 등이 꼽혔다.

지구상에는 현재 약 1천400만 종의 동·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보전론자들은 이 가운데 약 1만 2천 종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고 수천종은 멸종을 향해 다가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구진은 컴퓨터 모델을 이용한 기후 예보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선진국들이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예측대로 대거 멸종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온실 가스를 생성하지 않는 기술로의 신속한 전환 및 탄소 제거 기술을 결합하게 되면 약 15~20% 종이 멸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박사를 중심으로 18명의 다른 학자들이 참여한 이번 연구 보고서는 과학잡지 ‘네이처’ 1월 8일자 호에 발표됐다. 